

From : Kimbyung

Date : September 5, 2010

Subject : 어느 노인이 남긴 쪽지



어느 노인이 남긴 구겨진 종이쪽지에

돈 있다 위세치 말고,
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척 하지 말고,
건강하다고 자랑치 말고,
명예가 있어도 뽐내지마소

다-아 소용없더이다.

나이들고 병들어 누우니
잘난자나 못난자나 너 나없고
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

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
똥,오줌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

당당하던 그 기세
그 모습이 허망하고 허망하구려

내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양
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

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식구 아닌
바로 그 남들이 어찌면
이토록 고맙게 해주는지
웃는 얼굴로 따듯한 미소지으며
날 이렇게 잘도 돌봐주더이다.

아들 낳으면 일촌이요,
사춘기가 되니 남남이 되고
대학가면 사촌이 되고
군대가면 손님이요
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더이다
장가가면 사돈되고.
애 낳으면 내 나라 동포요
이민가면 해외동포 되더이다.

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
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
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
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

장가간 아들은 회미한 옛 그림자 되고
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요
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구려

자식을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
아들은 큰 도둑이요
며느리는 줌도둑이요
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

그리고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
사위는 아들로 착각하는 일 마시오

인생 다 부질없더이다
인생 다 끝나가는
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

